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6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토양환경과장 강희규 ☎440-5511 • 담당자 백인찬 ☎440-551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 건강 위한 인천 주요 도로 환경조사 실시
- 3 ~ 10월 도로변 퇴적물의 미세플라스틱 등 12개 항목 조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월까지 4개 자치구 주요 도로의 퇴적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퇴적물은 차량 이동 등으로 비산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흡입할 경우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시·군, 구에서는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유해 물질 함유량, 재비산농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를 대상으로 도로변 퇴적물 특성 조사를 실시해 중금속 등 22개 항목이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올해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주요 도로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해 도로변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의 오염도를 검사하고 재비산먼지 농도와 다양한 인자(교통량, 입자크기 등)간의 상관

관계를 도출해 유해 물질의 거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변 퇴적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구와 협력해 도로변 퇴적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재비산먼지에 시민들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도로변 퇴적물 시료채취

